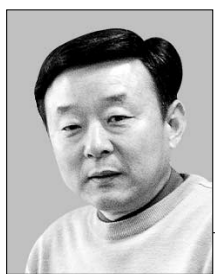


가정은 행복의 최소단위다. 화평과 위안의 추상적 공간이 고향이라면 맨살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다. 참혹한 전란 속에서도 가정은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였다. 그러나 세월의 비정함을 증명하려는 듯 가정이 위태롭다. 요즘 벌어지는 가정 폭력 사태는 날마다 아슬아슬하다.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제폭판도 숨이 켜질까 할 지경이다. 애 못 낳는다면 머느리 때린 시아버지, 새벽 세 시에 문을 늦게 열었다며 열 살 난 아이를 마구 폭행한 아버지, 가정 폭력에 시달려 다 가장 살해한 모녀, 강도로 위장해 남편 청부 살해, 남편의 폭력 피해 도망치던 아내 옥상에서 추락사 등, 경우의 수를 나열하듯 사건의 유형과 방법이 파다하다. 그 잔혹극의 무대는 가정이고 등장인물은 가족이다.

급기야 얼마 전, 삼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휘둘러온 일벌 중독자인 아버지를 네티어로 폭 풀라 숨지게 한 열 네 살 여중생 사건 소식을 접하기에 이르렀다. 귀와 눈을 막고 싶다. 숨이 멎을 지경이다. 가정 폭력의 원인과 대책이 숨 가쁘게 쏟아져 나오지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허무함에 사지가 녹아내린다. 관계의 단절이나 소통의 부재니 하며 험란한 어휘로 치장하는 문화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대진대 문창과 교수 · 본지 논설위원

칼날 위에 얹혀 있는 가정

가정 폭력은 수많은 사례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낯선 체험이다. 그것을 예방하려는 법과 제도의 미비함에 피상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게 짜여져 있다한들 낯선 체험을 막을 수 있겠는가. 가정 폭력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강자 중심의 사법관행을 개선한다고 무너진 인륜과 사라진 생명이 부활할까.

법과 제도는 정치의 몫이다. 인간의 심성을 조절하고 순화하는 것은 종교의 몫이다. 정치와 종교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세상의 빛과 소

금이니, 무명을 일깨우는 목탁이니 하는 공허한 구호에만 충실한 것은 아닌가.

모든 사건 사고는 감성의 산물이다. 특히 가정 폭력은 충동적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습관 때문이다. 손수의 거리를 규정할 수 없는 부부, 부모 자식간에 저질러지는 야만적 횡포다. 충동을 자제하는 힘과 인내를 한 뼘만 기른다면 순간적 최면 상태를 억제할 수 있다. 부처의 자비라는 거창한 관념적 명제를 가르치기에는 그들의 가슴이 이미 너무 딱딱하다. 그저 하루 한 번이라도, 울컥하는 격분이 치솟을 때, '휴~ 관세음보

살'이라고 한 마디만 읊어보자. 한 박자만 늦추면 악귀 같은 상대의 얼굴이 달리 보인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인다.

의무와 권리, 이기와 이타가 오롯이 뭉쳐진 곳이 가정이다. 세상을 만드는 기초 세포조직이 가정이다. 뒷방선 가해자 역시 천원으로 맺어진 가정이다. 분노와 억울함 없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멧돼지가 자라나는 이빨을 마모시키려고 고목 등치에 부지런히 이빨을 갈아대듯이 참고 삭이며 사는 것이 세상이다.

세상에 널린 것이 총칼이다. 마지막 안식처인 가정만은 칼날 위에서 내려놓자. 공포와 불안의 기운을 걷어내자. 숨 한 번 만 더 쉬고 가족을 바라보자. 그들은 적이 아니라 눈물겨운 동반자다.

며칠 전, 속상한 일이 있어 술을 과하게하고 밤늦게 귀가했다. 이유 없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싶었으나 들숨 크게 쉬며, 참고 들어가 잠든 딸애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편한 자세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 머리가 멍하고 얼얼한 중에 또 다른 생각이 겹친다.

십여 년간 아버의 주정과 폭력에 견디다 못해 아버를 죽인, 딸애와 동갑내기인 강릉 여중생이 양은 지친 차디찬 교도소에 있다.

아! 관세음보살!

불자의 눈

열악한 군 포교의 현황 속에서, 그래도 가장 큰 기여를 하면서 군 포교를 주도하는 것이 조계종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하기에 조계종이 중심이 되어 군 포교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타 종교와의 상대적 포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힘의 결집에 나서야 한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조계종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군종 특별교구' 제도도 군법사 활용과 군포교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조계종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군 법당이 '조계종 ○○사'로 불리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의 현실은 종파와 종단을 초월하여 불법의 흥포에 힘을 합쳐야 할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여 조계종이 일종의 특권 선언을 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는 다른 종단들의 군 포교 의지를 원초적으로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아무리 대

군포교 거시적인 틀 짜야

승적 차원에서 힘을 합쳐서 해도 군 법당이 조계종 사찰 간판을 달게 된다면 자연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계종이 우선 대승적 입장에서 각 종단들의 군 포교 의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 포교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의 힘이라도 더 모아야 할 형편에 이미 참여하고 있던 힘이 떨어져 나가서야 될 일인가? 모든 불자, 모든 사찰, 모든 불교 종단들이 군 포교를 자신들의 일로 여기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군 포교를 살리는 바른 길이라는 큰 원칙을 지녀야 한다. 그런 원칙 아래서 군 법당에 조계종 사찰로 불리게 되는 것이 군 포교의 체계화를 위해 그토록 필수적인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조계종 중심의 군 포교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현실적 효율성을 가진다면 군 포교를 살리되, 명분상으로 타 종단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조계종에서도 타 종단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모색해왔다 하였으니, 이번 조계종의 '군종 특별교구' 시행이 범불교적인 군 포교 활성화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가 되도록 불교계 모든 종단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우토로를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금이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때이니라. 때를 놓치지 말고 참회하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허물이 있을 지라도 곧 스스로 그것을 고치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니라. 내 가르침은 넓고 커서 큰 허물이라도 용서하니니 지금 참회하는 것이 좋다." <중일아함경>

'우토로'는 일본 교토 인근의 작은 마을이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이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이유는 '우토로'의 문체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아픈 역사'이기 때문이다.

'우토로'에는 1941년부터 교토 군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징용당한 조선인과 그 후손 65가구 203명이 살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우토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법기구를 동원, 이들을 강제로 쫓아내려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0년 땅 소유권자인 '닛산자회'의 요구대로 주민들에게 월거 명령을 내렸다 한다. 일본은 이미 1949년에 강제로 조선인들이 세운 민속학교를 폐쇄시켰으며 1987년까지도 제대로 된 상수도 시설을 만들어주지 않은 채 방치했다.

2세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보듯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독도가 자국 땅이란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의 몰상식한 태도는 바로 이 '우토로 문제'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이 건전한 양심과 도덕, 제대로 된 역사의 의식을 가진 나라란 것을 믿기 힘들다

한국과 일본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4월 27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토로 국제대회의'를 발족시켰다. '우토로 국제대회의'는 국제 NGO단체와 연대해 일본정부에 항의하고 UN에 우토로 문제를 상정키로 했다. 진지한 대화와 반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강유신(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기쁨과 나눔의 등' 불자의 자랑

매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서울시청 앞은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거대한 상징물이 등장한다.

올해 조형물은 '기쁨과 나눔의 등'으로 상서로운 상징인 흰 코끼리를 등으로 만들어 밝힘으로써 상서로운 기운이 땅에 넘치고 기쁨과 나눔이 온 누리에 퍼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예년과는 달리 올해 행사는 조형물에 불을 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등음악회가 열렸다. 불자로서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킬 수 있는 행사였다. 장사익씨 신호범씨 등의 음성공양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사물놀이도 부처님오신날을 기쁘게 장식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온 세상에 부처님 오심을 알리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인연을 나누는 기쁨이다.

이제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온다는 실감이 난다. 5월 8일 열리는 연등축제도, 15일 봉행될 봉축법회도 불자인 것을 기쁘게 느낄 수 있는 날 가운데 하나이다. 올해의 행사들도 여법하게 잘 치러지기를 바란다.

조순서(서울 중구 소공동)

'참선 열차'라니...

구타 언어폭력 등 근대 내의 가혹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육군이 기합을 참선으로 주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

명 '참선 열차'

그 소식을 접한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나 나오지 않았다. 근대 내에서의 교육의 일환으로 참선을 활용한다면 불교 수행법의 활용이라 생각해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참선을 열차로 주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이 같은 열차러 방식을 생각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다.

가혹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의도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20분간의 참선은 '벌'일 뿐이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참선이 벌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육군본부 쪽에서도 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지만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소중한 수행법이 순간에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유정훈(서울시 중랑구 군자동)

연등축제 소외계층과 함께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전국의 사찰은 물론 거리는 온통 연등으로 밝혀진다. 불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처님의 미소만큼이나 환한 연등을 바라보며 저 마다의 소원을 비는 모습은 송고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기부처님의 탄생에만 주목한 나머지 진정한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지 않나 한번쯤 곱씹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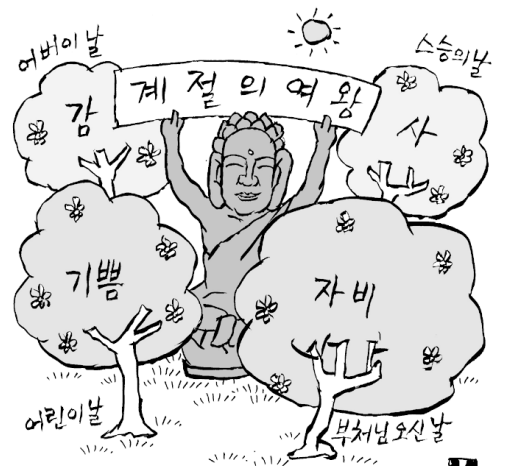
남산 마라톤 코스 변경 '형용'

경주 남산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길 마라톤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경주 남산은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불교의 성지다. 산 곳곳이 유적지 아닌 곳이 없는 자랑스러운 산이자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그런 곳에서 수백 수천의 사람이 산길 마라톤을 또 한다는 생각에 아찔하기도 했다.

그런데 주위 속에서 남산 산길을 걷는 코스로, 경주왕경을 돌아오는 달리기 코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경주남산의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경주 시민·문화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스를 고친 주위 측은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

백정훈(경북 경주시 동천동)

'연대' 민영 심민섭



국내 유일의 선사화 전시판매장 달마화랑. 선사화 : 수행을 오래한 선사들의 심오한 깨달음을 표현한 글씨나 선의 경지에서 얻어진 수묵화(달마도, 산수도, 심우도, 용문, 팔화 등)를 일컫는다. 귀한 선사화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계신분과 선사화를 꼭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의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범주스님 달마도 특별초대전 (4월 29일~5월 29일). 달마화랑 오픈기념, 부루나양로원 기금마련. 우리나라에서 참선스님이시며 달마도 최고의 대가(大家)이신 범주스님의 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

한자 교육 지도사 육성. 목적: 1. 한자 공부를 통해 [우리말, 우리글]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사랑 할 수 있도록 양성. 2. 최근 각계에서 한자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들을 쉽고 흥미롭게 지도 할 수 있는 유능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함.

命理(명리)四柱풀이 완성반 大모집. 개강일: 5월 12일(목요일)부터 6개월 과정. 시간: 오후 2시부터 ~ 5시까지. 의의: 우리는 우매한 인간이라 온 길을 모르듯이 갈 길도 모른다. 이제 천기의 흐름을 읽어 자신이 어디쯤 와서 머무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기 위하여 배워보자.